

# 1월 출생아 역대 최저...광주 516명·전남 733명

### 감소율 갈수록 가팔라져...전국 출생아수 2만명대도 아슬아슬 광주 전년 대비 17.6%↓...전국서 세종 다음으로 감소율 높아

광주와 전남의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은 연간 신생아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 달로 꼽히지만, 광주시의 경우 출생아 수 감소율이 전국 17개 시군 중 세종시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는 통계 발표 때마다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갓난아이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월 인구동향

에 따르면 올해 1월 광주시의 출생아 수는 516명으로 1년 전(626명)에 견줘 110명 감소했다. 광주시의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11월 449명으로 바닥을 찍은 뒤, 지난해 12월(455명), 올해 1월(516명)까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조차 매년 새해 첫 달에 출생아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지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중 역대 최저치다. 광주시 1월 출생아 수는 지난 2000년 2159명을 기록했지만, 2002년 급감해 1000명대로 내려섰

고, 지난 2018년 1000명선이 무너지며 901명을 기록했다. 이후에도 꾸준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출생아 감소율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증감율은 1월 기준 2023년(-14.7%), 2024년(-17.6%)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올 1월 광주시의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 감소율은 전국 17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세종시가 18.2% 감소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고, 광주가 뒤를 이었다. 전남 역시 한 해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난다는 1월, 아이 울음소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전남의 올 1월 출생아 수는 733명으로 전년 동월(782명)보다 49명(6.3%) 감소했다. 전남지역의 1월 출생아 수 감소율도 커지는 추

세로, 올해의 경우 지난 2023년(2.9%)보다 2배 이상 된 6.3%를 기록했다.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2000년대까지는 1월에 2500여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지만, 점차 감소해 지난 2022년 10월 500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 1월 기준 전국 출생아 수는 2만 1442명으로 전년(2만3230명)보다 1788명(7.7%) 감소해 동월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다만 지난해 3월(2만1218명) 이후 월별 출생아 수가 2만명대를 회복한 것은 10개월 만이다. 최근 정부의 주택 지원사업 등 인구소멸지역 대책에 따라 신혼부부가 늘어나면서 출생아 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 기능경기대회 다음달 1~5일 개최

광주지역 숙련 기술인들의 축제인 광주시 기능경기대회가 다음달 1일 개막한다. 이번 대회에는 339명이 출전, 36개 직종에서 기량을 겨룬다. 경기는 광주공고 등 10곳에서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치러진다. 입장사에게는 상금과 상장, 메달이 수여되며, 기능사 자격시험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번 대회 입상자는 오는 8월24일부터 7일간 경상북도에서 열리는 제59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광주·전남 대표선수로 출전한다. 지난해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2개에 그친 광주시 선수단은 올해 4개의 금메달을 목표로 한다. 한편 전국대회 입상자들이 출전하는 국제 올림픽대회는 올해 9월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되며, 광주시 출신 국가대표 9명이 출전한다. 윤옥균 광주시 기능경기대회 운영위원장(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광주 지역의 우수기술인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발휘해 지역산업과 경제발전에 앞장서는 숙련기술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난 26일 광주시 북구 '2024 광융합 무역추진단'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Kreassiv'사를 방문해 미국 광통신 진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왼쪽) 같은 날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세계한인무역협회 LA 지회와 경제 발전 교류를 골자로 하는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광주 북구청장 문인(가운데)이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세계한인무역협회 LA 지회와 경제 발전 교류를 골자로 하는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광주 북구 광산업·IT 기업 미국 진출 첫발...무역촉진단 현지일정 시작

#### LA·샌디에이고 방문 수출 상담회·OFC 참가·MOU 체결

광(光)산업과 IT 인프라가 풍부한 광주 북구가 미국 진출 첫 발을 내딛었다. 광주 북구지역 광융합과 IT 기업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2024 광융합 무역촉진단'이 지난 24일부터 5박 7일간 현지 유통사와 AI연구소, OFC 전시장 등을 방문하고 수출 상담회와 OFC 참가 기업 현지 상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미국 행에 올랐다. 광 통신 분야 7개 업체와 AI분야 4개 업체도 무역 촉진단 일정에 처음으로 함께했다. 27일 찾은 샌디에이고 OFC(미국 광통신 통신 박람회)현장은 세계 65개국 580개 기업의 부스로 가득했다. 기업 설명을 듣고 계약 체결을 논하기

위해 박람회장을 찾은 관계자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광주 북구 촉진단에 있는 6개 기업의 부스도 눈에 띄었다. 이후에는 UC 샌디에이고를 방문해 '유바'의 초창기 멤버이자 뇌과학과 컴퓨터 연구를 하고 있는 Brad Voytek 등 현지 기업 매칭 전문가들과 만남을 가졌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AI에 대한 인식과 진출 요건 등 진출 '비법'을 공유했고, 추진단 IT 기업 관계자들은 한국에서부터 준비한 PPT를 발표하며 기업 '어필' 시간을 가졌다. 앞서 26일에는 광주시 북구의 IT 업체와 광 통신이 각 업체별 벤치마킹 시간을 가졌다. 이날 IT 업체는 글로벌 네트워크 IT 컨설팅의

방식을 배우기 위해 LA에 있는 'Kreassiv'미국 본사를 찾았다. Kreassiv는 2020년부터 전남 브랜드관을 개설해 전남에서 만든 30여개 제품을 아 마존에 수출하고 있다. 이어 북구와 광산업 관계자들은 LA 남서부에서 항공우주 및 방위, 의료 및 생명과학 등 첨단 광 전자들을 공급하고 있는 OSI(Optoelectronics)에 방문해 매뉴서 만수리(Manoocher Mansouri) 회장을 만났다. 매뉴서 만수리 회장은 "광산업은 시장성 있는 특정 분야를 꼽을 수 없을 만큼 이동수단, 보안, 국방 의료, 항공, 자동차 등 응용분야가 많다"며 "다 만 텔레콤 산업은 미국에서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흐름을 설명했다. 이날 북구는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LA 지

회,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와 3차 MOU를 체결, 북구 기업의 미국 시장개척 및 확대를 위해 상호 성공적인 경제 발전 교류와 협약을 약속했다. 한편 광주 북구는 광산업의 핵심 지지체다. 광주 지역 310개 광융합 사업체 중 북구에 있는 사업체는 240개로, 전체 77.8%에 달한다. 광주 지역 광산업은 '광조명' 분야가 87개 업체로 가장 우세하며 광통신(50개), 광의료바이오(48개), 광에너지(39개) 순으로 많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옥타 LA 업무협약 등을 계기로 한인 기업들의 교류가 활성화 되길 바란다"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광주 북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샌디에이고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

## 농협 전남본부 쌀 적정생산 대책 권역별 설명회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지난 26일 '쌀 적정생산대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이번 설명회는 농협 담당자에게 쌀 적정생산의 필요성을 환기시켜 농업인 대상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남본부는 서부권 농협 수매업무 담당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계획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설명했다. 또 전남도 식량정책팀이 전략작물직불제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2024년 전라남도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4407ha) 달성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종탁 본부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벼 적정 재배면적 확보와 타작물 생산 확대를 달성하고, 나아가 전남의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농협은 오는 4월 3일 순천농협 5층 대강당에서 동부권 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지난 26일 '쌀 적정생산대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 광주상의 MAS 컨설팅 지원

#### 제조기업 6개사 선착순 모집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는 '2024년 다수 공급자계약(MAS) 컨설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직접생산증명서와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광주시 소재 제조기업으로 6개사를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된 기업에는 전문가 컨설팅(300만 원 상당)을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광주상의 재화석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지원사업을 통해 컨설팅을 받은 기업 모두 나라장터 쇼핑 물에 입점하여 86억원의 납품실적을 기록하는 등 수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기여해왔다"며 "지역기업들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상의 누리집(www.gjcci.or.kr) 공지사항을 참고해 광주상의 협력사업본부 062-350-5891로 연락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부담금' 빠진 영화값 500원 싸진다...항공·전기료도 인하

#### 정부 32개 부담금 폐지·감면 4인가구 전기료 연 8천원 인하

정부가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기로 하면서 영화티켓, 전기·항공요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상품의 요금·가격이 줄어드는 인화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서비스·상품 가격 인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비 대상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총 8개다. 모두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내던 '숨은' 부담금들이다.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의 3.7% 수준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앞으로 1년간 두차례에 걸쳐 3.2%, 2.7%로 순차 인하하기로 했다. 요율 인화로 4인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연간

8000원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반·차세대 공정기술 업종인 '뿌리업종' 기업은 연 62만원의 전기요금 절감이 예상된다. 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석유·석유제품의 수입·판매 부과금도 1년간 한시적으로 30% 줄어 든다. 이에 따라 4인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가스요금 부담이 연간 6160원이 낮아질 전망이다. 영화 입장권 가격의 3% 수준인 영화상영권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돼 영화티켓 가격은 약 500원 내려간다.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금도 요율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인하된다. 이를 통해 차 보험료가 연간 6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려간다. 출국납부금을 구성하는 관광개발진흥기금 지원 3000원을 인화하고, 국제적

병퇴치금 지원 1000원을 폐지한 것이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제교류기여금 인화로 복수여권 발급 비용도 3000원 줄어든다. 기업에 주로 부과된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던 11개 부담금도 모두 개편됐다.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해 온 개발 이익의 20% 상당의 개발부담금도 한시적으로 50~100% 깎아주기 시작했다. 배기량 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도 내려 간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지 전용 때 부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요율은 30%에서 20%로 인 하하고 관광단지를 위한 농지 전용에는 부담금을 면제한다. /연합뉴스

### 현대차그룹 2026년까지 국내 8만명 채용·68조 투자

현대차그룹이 3년 간 70조원 가까운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27일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26년 말까지 국내에서 8만명을 채용하고 68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6년까지 현대차그룹의 직접 채용 규모는 8만명이다. 완성차 부문 고용 증가에 따른 국내 부품산업 추가 고용 유발 11만8000명을 고려하면 전체 고용 효과는 19만8000명에 달할 것으로 현대차그룹은 보고 있다. 건설과 철강 등 다른 산업까지 포함 시 고용 창출 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현대차그룹은 미래 신사업 추진, 사업확대·경쟁력 강화, 고령 인력 재고용 등 세 부문에서 8만명을 채용.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국내에 68조원을 투자한다. 현대차그룹은 연구개발(R&D) 투자에 31조 1000억원, 경상투자에 35조3000억원, 전략투자에 1조6000억원을 각각 집행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삼성전자, 헨켈과 공동개발 AI 콤포 전용 세제 선보여

삼성전자는 27일 세계로 대표되는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헨켈(Henkel AG & Co. KGaA)과 협력해 울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포'의 전용 세제 코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헨켈이 공동 개발한 '퍼실 딥 클린 코스'는 삼성전자의 독자적인 'AI 버블' 기술을 헨켈의 대표 액체세제인 '퍼실 딥 클린' 세제에 최적화해 세제 사용량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해준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AI 버블 기술은 세제를 미리 물에 녹여 섬세하고 풍부한 거품을 만든 뒤 옷감 사이에 빠르게 침투시켜 빠르고 깨끗하게 세척하며, 옷감 특성에 따라 거품의 양을 조절한다. 퍼실 딥 클린 코스 사용 시 표준 코스 대비 적은 양의 퍼실 딥 클린 세제로도 동일한 세탁 성능을 낼 수 있어 연간 약 600ml의 세제 절감이 가능하며, 이는 약 두 달 간 더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또한 찬물로 세탁해도 40도로 설정한 표준코스과 동일한 세탁 효과를 낼 수 있어 사용 에너지를 약 60% 절약할 수 있다. 퍼실 딥 클린 코스는 비스포크 AI 콤포에 탑재됐으며, 7형 대화면 터치 디스플레이에서 간편하게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55.11 (-1.98)
↓ 코스닥	911.25 (-4.84)
↓ 금리(국고채 3년)	3.288 (-0.013)
↑ 환율(USD)	1348.70 (+9.20)